

바다 570km 건너 제주 밀입국... 군·경은 ‘깜깜’

경찰, 30대 중국인 2명 구속 송치... “돈 벌러 밀입국” 지난달 검문검색서 검거... 한달 가량 농촌서 돈벌이 “소형 선박 탐지 한계”... 제주 해상 경계 체계 ‘허점’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까지 약 570km의 긴 거리를 건넜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 해상 경계 체계는 이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길이 약 6m의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제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앞서 각각 2020년 1월과 2024년 1월에 무사증으로 제주

에 입국해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돼 2025년 10월과 11월 강제 출국을 당했고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제주에 들어와 양파 수확일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SNS)에서 ‘제주로 갈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지난 3월 중순쯤 중국인 브로커와 접촉해 각각 1인당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 위안(약 760만원)을 지불해 배를 타고 약 570km를 건너 22시간 만에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배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명만 제주에 내렸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2명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제주 해안



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선박. 제주경찰청 제공

경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해안경계 감시를 위해 가동하는 장비와 인력을 통해 이들을 확인한 것이 아닌 이미 제주에 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20일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검거되면서 이들의 진술을 통해 밀입국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인 6명이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서 고무보트

를 타고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연안을 감시하는 제주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약 250km 구간에 설치돼 24시간 가동중인 해안경계 감시의 시작인 ‘레이더’ 전파 탐지인력을 1.5배 이상 확대하고 열영상감시장비(TOD) 탐지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했다. 영해·배타격제수역·공해 등 위해 감시를 하는 해군·해경 역시 해상에서 이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처럼 소형어선의 경우 탐지의 한계가 있음을 전한다.

해경 관계자는 “의심 선박이 있으면 검문검색을 하지만 해안경비관할 면적이 넓은 만큼 실시간으로 모든 선박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안 경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가파도서 ‘차 봉지’ 마약류 또 발견

지난해 포함 21번째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 의심 물체가 또 발견됐다. 이번이 스물한 번째다.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쯤 서귀포시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

이 물체는 해안가 정화활동을 하던 바다환경지킴이가 갯바위 위에

쓰레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발견된 물체는 1kg의 은색 차 포장지 형태였고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포장 형태와 동일했다. 포장지 외부는 불규칙적으로 찢겨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정확한 성분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노동절 제주대회

지난 1일 제주 곳곳서 양대 노총 기념대회 개최

첫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기념해 제주 노동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제주 시청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대회를 마치고 제주 시청에서 출발해 판덕정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한국노총 제주본부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9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유리기자

술값 정해 경쟁 막은 제주주류도매업협회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결정

사업자간 거래처 침탈 금지·소매업체 판매가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제주주류협회’)에 대해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 판매 가격의 마진을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토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처 침탈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제한했다.

판매가격 제한 조항과 관련해선 구성사업자에게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의 유지·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19년 11월 국제청 고시인 ‘주

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돼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주류소매업자에게 냉장진열장(쇼케이스),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대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무지월시(주류도매업자가 주류소매업자와 거래시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할인율은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도 했다.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은 구성사업자 간에 통용되는 용어다. 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에 따라 27.5~30% 마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생존가격은 무지월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지월시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문미숙기자

현재 “제주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대상”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사후양자 제도가 1991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나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폐지 이후에도 민법상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봤다.



비바람 뚫고 질주하는 라이더들 3일 제주도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라이더들이 강한 비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또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

서’를 들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관습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

내는 관습이 존재했다”며 “장시간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소정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大賞